

지역 소식통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천연염색 기초교육 운영 '호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천연염색 교육 과정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술센터는 지난 4월부터 '천연염색 기초교육'을 운영 중이다.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은 이달 27일까지 이어진다. 모두 8회 과정이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천연염색은 자연의 색을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아름답게 색을 표현하며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술센터는 "천연염색은 자연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색소를 표현하는 전통 기술이다"고 소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일상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염료의 분류와 추출 온도, 매염제의 작용 등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우리의 전통색인 오방색(청, 백, 적, 흑, 황)을 표현하는 실습도 진행되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연염색 전문 인프리를 구축하여 전통의 생활 기술을 계승 보급하고, 정읍의 색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멋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

부안경찰서(서장 강형신)가 한국형 자생테러 및 북 후방테러위협에 대비해 지난 14일 15시 변산대명리조트에서 부안경찰서, 105연대 1대대, 부안소방서, 부안군 보건소, 대명변산리조트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가졌다. 이날 훈련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모 대학 교수실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대명리조트에서 인질극 상황, 폭발물 처리, 화재 진압에 따른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이 실시됐다. 강형신 부안경찰서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테러 발생시 각 유관기관별 초동조치사항을 점검 및 숙지할 수 있었고, 대테러 취약시설인 대명리조트 관계자들의 테러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시설을 점검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박우정 고창군수, 주요 사업 19건 기재부·국회단체 반영과정 협력 요청

박우정 고창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박 군수는 15일 고창·정읍 지역구 국회의원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등 고창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군수는 옥동 소하천 정비사업 등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주요사업 19건(총사업비 3,800억원 규모)에 대해 기재부와 국회단체 반영과정에서 협력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유성엽 위원장은 지역 현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에 발굴한 예산 이외에 그간 논의돼왔던 '석전 박한영 기념관 건립을 가시화하기로 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뜨고 있는 곤충산업육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아직은 국가 정책이 빈약한 것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의 보강요구와 국립 곤충박물관 건립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박 군수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만나 고창지구 도시 침수 예방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 국회의원과 고창출신 국회의원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채널을 활용해 끈질긴 노력을 하겠다"며 "고창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역 내 입주 기업인과 간담회 가져

고충·애로사항 수렴·해소방안 마련 지원 시책 등 안내

정읍시는 15일 지역 내 입주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기업지원 시책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만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100여개 업체 관계자, 정읍세무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북직식재산센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사)글로벌 무역진흥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다양한 애로와 고충 해소 방안을 다뤄 논의했다. 또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 등 기업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다. 특히, 자동차 생산업체인 (주)다윈스에서 지역부자와 사업 추진 상황 등 협력 업체 참여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다윈시스는



입입면 노력역 일원에 300량 이상의 자동차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기지를 건립 중에 있다. 김용만 부시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지방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기업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기업체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의 원천이다"고 강조하고 "간담회 건의사항과 고충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일환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정읍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 강화 일환으로 15일 선진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날 여주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우수 사례를 수집했다. 시는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각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 주민

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활동 특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논의했다. 또 고소 천사벽화마을과 이순신 광장 오토도를 탐방하고 해상케이블카도 즐겼다. 여주시 중앙동은 아름다운 바다와 고지대의 장점을 활용한 1004m의 벽화 골목길을 조성했다. 이곳은 현재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통 협력의 사례로 꼽히며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그간 주민자치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변산면 유유마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상생 발전·체험관광 활성화 상호협력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5일 국립변산자연휴양림에서 유유마을 손기홍 대표와 임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희선 서부지역팀장과 박영길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고 상생 발전 및 체험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980년대 후반 유영산과 대관령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39곳의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해 연간 약 300만 명의 이용 고객

이 즐겨 찾는 기관으로 휴양림 관리소의 인프라와 유유마을의 로컬 푸드를 연계한 지역상생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휴양림 관리소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변산자연휴양림내에 로컬푸드 판매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유유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생산한 1, 2차 상품을 해당 공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 계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반기 복지허브화 사업 운영내실화 방안 모색

부안군 계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계 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한 운영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협력 배분사업 공모를 하려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선정하고 복지허브화 시행과 관련한 운영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계 화면의 경우 하반기 복지허브화 확대 지역으로 선정돼 기존 주민복지팀이 통합되고 맞춤형 복지팀이 신

설된 지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광중 계화면장은 "7월 맞춤형 복지팀 신설 이후 계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복지허브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적극 활동해 계 화면에서는 단 한 건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소방서, 10년 경과 이동탱크소집검사

고창소방서는 지난 14일 노후화된 이동탱크저장소의 범상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소집검사를 실시했다. 10년 이상 노후된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저장탱크 부식으로 인해 위험물 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노후로 성능 저하된 차량은 운행 중 교통사고로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내에서 수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가

운 소방서와 협의 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할 검사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허가된 이동탱크저장소 중 탱크용량이 1만 1이상이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사고 발생 시 대형재난의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탱크저장소 관계자는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